

제 2 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 다녀와서

REPORT

2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by Jeon, Bong Soo



제 2 회 ARCASIA 회의장에서 우리대표단 일행

처음에

협회국제위원으로 초년생인 필자가 ARCASIA 에 대해 낯설기는 다른 회원과 다를 것이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 2 회 건축사회의(제 1 회 아시아학생잼보리 대회경)에 국제위원이 참관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면무식이나 하려고 제 1 회 대회에 참가했던 분들의 보고서며 제 6 회 이사회 참관기 등을 찾아 읽고 금번 대회의 개최국 말레이시아 건축가협회(PAM)로 부터 보내진 문서들을 뒤적이며 ARCASIA란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현지에도착해서도 아시아 국가간 친선단체러니 하는 막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카시아 꽃이 피는 나무는 acasia로 쓰고 그것도 아카시나무라고 해야 옳다는 것도 그때 안 만큼 필자의 소양은 형편이 없었다.

출발 한달전 쯤부터 이번 회의에 대비하여 한국건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김우성회원(아키텍플랜)을, 회의 주제 토론자(패널리스트)에 조재원회원((주) 창조)이 추천되어 그분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사전준비를 하였고 그 성과도 매우 훌륭하였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려야겠다.

김 우성회원이 제작한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건축”이란 주제의 Slide를 이용한 멀티비전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이를 상영하기 위한 프로젝터(3대), 녹음기,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콘솔 및 장비 설치대 등이 개최지에서 구할 수 없다 하여 서울에서 전장비를 운반하였다. 김포공항에서 세관원과의 실경이가 있었고 말레이시아 세관에서도 미화 200불의 공탁금을 내고야 통관이 되었다.

현지 도착 즉시 한국대사관에 대표단의 도착 목적 및 체재기간 등을 전화로 알렸다. 체재기간중 단 한차례의 확인도 하지 않은 우리대사관과 자기네 건축가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회기간중 회의장 주변을 맴돈 북괴 대사관과는 대조가 되었다. 1986년 10월 8 일 부터 1986년 10월14일 까지의 일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제 7 차 이사회(1986. 10. 9~10)에서

투숙한 상그릴라 호텔의 지하 1 층. 케다룸 회의장. 50여평의 회의장 중앙에 32개의 대표단 좌석이 □자 모양으로 배열되었고 대형녹음시설과 칠판이 걸려있고 몇개의 화분이 실내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였다. 공식대표(우리는 오웅석 전회장과 송기줄 위원장) 이외는 대표단 의자 뒷덕에 배열된 좌석에서 회의의 진행을 지켜 보았다. 대표단과의 컷속말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협회에서 준비한 각종 홍보물(협회소개 팸플렛,

전봉수 /

(주) 창조건축사사무소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건축사지, 88올림픽 안내서, 연간 실적보고서, 윤리규약, 건축사협회 보수기준, 호돌이 뱃지, 기념주화, 협회 뱃지 등)을 회원국에 전달하는 일, 주최자측과의 잡무연락과 MARA 공과대학(ITM)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 잼보리 대회와의 연락 등을 맡았다.

참관인은 14~15명이었다. 우리가 (김지덕 위원 및 필자) 2명 (패널리스트인 조재원 회원, 프레젠테이터인 김우성 회원과 교육분과 위원장인 이영일 이사를 빼고), 중공 3명, 대만 2명, 홍콩 2명, 파키스탄 2명 및 PAM 3~5명 등이었다. 이사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CAA 아시아지역 부회장의 축사를 필두로,

- 6차이사회의 의결사항 확인
 - 예산집행결과 심의
 - 회원국의 대표작품집 발간
 - 아시아지역 설계사무소 총람의 발간
 - 각국의 연간 업무보고
 - 중공과 대만의 가입 승인
 - 새 회장 선출
 - 차기 이사회 및 총회개최지 결정
- 등이었는데 회의 이틀간 모두 아침부터 자정이 임박해서야 끝을 낼만큼 열심들이었다. 토의 결과 소개보다 느낀 점 두 가지만 정리하겠다. 하나는, 방글라데시. 인구 1억에 등록건축사 145명, 협회 연간예산이 \$300~\$450인 초미니급. ARCASIA 회원국은 매년 \$500의 회비를 내는데 그 나라의 형편을 감안하여 \$200로 감액해 주어 왔으나 그도 벽차니 \$100만 내도록 선처를 비는 방글라데시 대표의 호소에 정관상 근거를 명백히 하지는 극성파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돕지는 분위기에 만장일치로 승인. 또 하나, 중공과 대만의 동시 가입. 회의 초기엔 서로 나란히 앉은 대표자끼리 얼굴도 대하기를 꺼려하는 듯하더니 시간이 경과하자 이번엔 끼리끼리(?) 모이는 중국인의 풍모를 보였다. 사전 막후조절을 해서인지 별탈 없이 가입이 승인되었다. 다만 두 대표단은 China Architect 라는 이름을 공용하되 소속국은 표시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덧붙여 구분한다. 또 이사회나 총회를 주최하지 않고 회장단에 대표자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회의가 끝난 후 현지 중공대사관에서 의의를 제기했다는 후문이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다.

2 차총회 (1986. 10. 11~13)에서 (ACA-2, Seco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

같은 호텔 지하 2층. 그랜드 볼룸. 500여석의 이동좌석과 단상의 9개 좌석. 단상 후면 벽에는 회의 사실과 주제가 써 붙여져 있고 양측은 스크린을 겸한 백색패널.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회의장 입구에 현지의 남녀민속무용수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북을 치고 꽃잎을 뿌리며 도열 사이로 입장하는 회원들을 환영하였다.

요란스런 축사의 연속 끝에 금번 회의의 주제인 “아시아지역에서의 설계용역의 전략”과 “아시아지역의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연속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7편의 논문 발표와 각논문마다 2명씩의 토론자(패널리스트, 조재원 회원이 14명의 토론자 일원)들의 의견발표가 있었고 객석에서의 질문도 만만치 않았다.

건축설계 분야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미국에서 비교적 성공한 유진.코온 (Eugene Kohn)씨의 자랑스런 경험담과 일본설계주식회사 사장이자 공학박사인 이케다씨의 가스외가세키 건물의 설계경험을 들은 방글라데시의 세이커씨는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 할 마케팅도 없다”고 하여 장내가 숙연했다.

이 회의에는 학생잼보리 대회가 끝나서 우리대학생 2명도 참석했고 협회 사무처장도 참여 회의외적인 사항도 살폈다. 그 다음날도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설계 방향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되었다. 며칠전 도하신문의 해외 토크에 보도된 로보트 건물의 설계자인 태국의 건축가인 슈메트 줌사이 (Sumet Jumsai)씨는 기고만장했으나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어떤 상관이 되느냐는 객석의 한 학생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은 없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아뜨리에 조오 (Atelier Zo)라는 설계사무소의 일본인 남녀 건축가는

준비한 프로그램을 서툰 영어지만 진실하고 성실하게 번갈아서 설명하여 호감을 샀다. 그들이 증오하는 3가지는 「냉난방시설」, 「격식갖춘 양복」과 「아지노모토 조미료」라고 청중을 웃겼다. 그 다음엔 각국이 준비한 자국의 건축현황 프레젠테이션. 11개국은 제한된 25분 이내에 설명하였는데 제한시간을 넘겨 사회자의 정지신호에 쫓겨 내려온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비하였는데 다른 회원국들은 Slide Show로 평면적으로 강의식 진행을 하여 다소 지루한 점도 있었다. 당초 우리의 차례는 6번째였는데 주최측이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다른 회원국이 준비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하여 전체적인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맨 끝으로 순서를 재조정하였다.

그 전날 멀티비전 (multi vision)을 상영할 화면이 작으므로 교체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협조에 소극적이었다. 호텔내를 여기저기 찾아 다닌 끝에 스크린으로 적합한 휘장막을 찾아 내어 밤늦게까지 설치작업을 하여 우리 차례에 대비하는 우리의 극성에 주최측은 어이없어 했으나 그 스크린으로 다른 회원국도 설명 를 가질 수 있었다.

맨 마지막 차례. 어둠 속에서 장비의 조립연결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 몇차례 예행연습까지 다시하였다. 붉은 갈색의 지구와 푸른 바탕의 한반도가 우아한 아악의 선율과 함께 화면에 나타나자 금방 탄성이 일었다. 내용의 진지함에는 조용해지는 청중. 아무튼 성공적인 회나래리는 인사를 받기에 바빴다. 애쓴 보람이 있었다. 차기 회의 개최국이 된 한국의 오회장의 인사를 끝으로 총회는 막을 내렸다.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각회원국 협회는 건축용역의 마케팅에 대한 신방식을 보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둘째, 국가차원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제 3의 수준에 있는 전문용역의 마케팅과 개업건축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셋째, 건축설계나 건설용역의

마케팅에 있어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관찰하여 지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네째, 전문분야의 규정을 검토함에 있어 국가차원의 연구소는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사항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가의 역할이 정도 이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건축가의 자국내 활동을 허용할 경우는 적절한 행정력과 법적인 기구를 도입하여 운영하면 그 지역의 산업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여섯째, 국가차원의 연구소는 소속 국가의 정부가 그 지역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인정하고 활용토록 강조하여야 한다.
 일곱째, 이미 아시아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턴·키(Turn Key) 방식 프로젝트나 조직화하는 전문기술과 같은 것은 서로간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아시아국가끼리 공유하여야 한다.
 였다.

회의진행을 위한 공용어에 대하여

금번의 각종 회의는 당연히 영어만으로 진행되었다. 당연하다 함은 ARCASIA 회원국 12개국중 9개국이 영어가 일상 공용어였으며 7개국은 아예 영국의 영향적인 영연방(Commonwealth) 국가였으니 말이다(표 1 참조). 따라서 동시통역이니 하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할 여지도 없었다.
 이사회에서도 한국, 중공과 대만의

대표들은 언어문제로 자연히 발언의 기회가 적어 듣는 편에 서는 소극적인 자세였음을 보았다.
 총회시에도 주제 논문이나 패널리스트의 의견서가 사전 배포되지 않아서 필자의 경우는 생으로 마구 쏟아지는 영어의 홍수 속에 주제 토론에 참가하여 질문도 하는 여유는 커녕 내용 파악에도 쫄쫄대는 역부족을 실감하였다.
 국제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노출되었다.
 동남아지역의 영어가 각나라 고유의 억양과 강세로 옥스포드영어나 아메리칸 영어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가 서로 다른 그들끼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았다. 피부색깔, 얼굴 모양만이 아시아인이자 영어의 구사에는 영국인이요 미국인이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총회의 두번째 발표자인 일본설계주식회사 대표이고 공학박사인 이께다다케꾸니씨의 경우, 주제 발표는 준비한 원고를 읽었으므로 무사(?)했으나 패널리스트와 객석에서의 질문에 두 손을 들고 수행한 직원의 도움을 청했다. 질문과 답변이 통역에 의하였으므로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내용 자체가 다소 김이 빠지게 되었다. 청중들은 단상에서 당황해하는 두 일본인을 보고 웃게 되어 분위기도 어색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착잡했다. 동남아국가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음은 그들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덕분(?)인데, 하고 내심 자위도 하였으나 실력이 부침을 인정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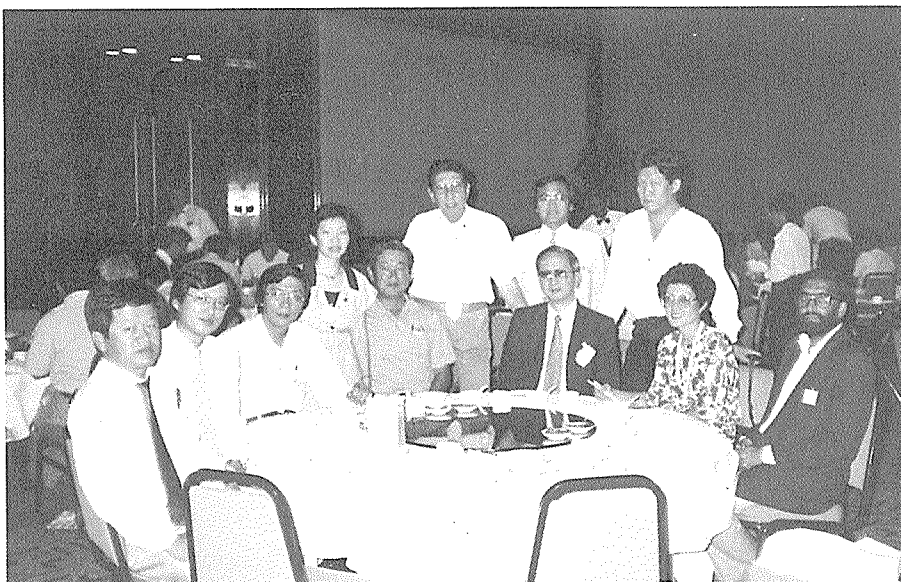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공의 패널리스트인 대학교수 한 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생활을 해서인지 어느 미국인보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서 더욱 오그라드는 기분이 되었다. 학생잼보리대회에 참석한 우리학생의 경우는 더 심했다고 들었다. 의사소통이 워낙 원활치 않자 대학측은 한국대사관에 탐문하여 통역을 주선하였는데 우리말과 말레이어를 하는 분이어서 말레이어와 영어를 하는 학생을 또 통역으로 채용하여 2중 통역을 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했다.
 차기회의를 주최하기로 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부분이다. 누구탓도 아니리라. 상황이 그러하니 대책을 이에 맞게 세워야 하겠다.

필자가 이해한 ARCASIA

ARCASIA는 196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CAA (영연방국가 아시아지역 건축가 대회) 회의시 회원국 6개국 (방글라데시,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이 주동이 되어 발족되었고 1970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가세했고, 1972년에 필리핀과 태국이 가입했다. 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영어문화권의 동남아 국가들이었다.
 설립 목적은 7 가지 였는데 그 내용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다. 회의에 참석하면서 ARCASIA에 관해 나름대로 느낀 것을 정리해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회원국의 국민소득이 \$2,000을 크게 밑도는 빈곤국이 대부분이다.(표 1 참조) 대부분이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난지가 반백년이 안되고 지금이라도 미국의 한개주로 가입하자는 정당이 있는 나라도 있다.
 착취당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어서 일까. 자본침략국에 대한 반감은 대단히 거셌다. 특히 신흥 자본국인 일본에 대한 반감은 더욱 심한 듯했다. 총회시 일본인 이께다씨의 발표시 서투른 영어에 대한 관중의 빈정거리는 태도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는 듯 했다. 일본의 가입이 자의견 타의견

좌측부터 필자, 김우성회원 · 송기덕위원장 · 김지덕부위원장이 보인다.





ARCASIA 교육위원회 회의광경, 이영일위원장·김지덕회원이 보인다.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음이 그것이 아닌가 한다.

ARCASIA 회의는 CAA 이사회나 UIA 제4지역회의와 함께 열린다. 회원국들은 몇차례 회의를 동시에 참가하는 셈이다. 같은 종류의 모임이 있는데 구태여 아시아권만이 중심으로 ARCASIA를 창설하였음은 영국과 미국 등 강대국의 입김이 없는 그들만의 모임을 갖고 싶어 했음이라고 짐작되었다.

자국내의 건설과 설계시장이 침식당해도 참을 수 있으나 자국의 건축가가 참여조차 못하는 데 대한 분노는 상상보다 커 보였다. 우리의 경우 해외 건설이 새로운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동남아지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들과의 교류없이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건축계가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창구는 UIA와 ARCASIA다. 그나마 UIA 경우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국제교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우리가 1985년에야 가입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아주 늦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시작이 반이니까.

끝으로

여행자가 가졌던 동남아지역 여행에 건 다소 비밀스런 기대는 호텔 객실과 회의장을 오간 스케줄로 무산되었다. 8박9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결과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첫째, 말이 같은 아시아지역내 국가들이 서로 너무 다른데 놀라워 했고 또 너무 서로를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았고, 둘째, MARA 공과대학에서의 학생작품을 보고 대학교수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의 교육 수준과 내용은 우리보다 월등한 점도 보였으며 젊은 세대의 건축가의 역량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수함을 발견하였다. 아시안게임의 획득메달수와 국가간 건축가의 능력 차이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다.

세째, 동남아지역 건축가들과의 교류 없이 그 지역의 건설시장 확대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했으며

네째, 동남아건축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10회 아시안게임 종료 직후여서 인지 "거친 완력"과 "역사의 깊이"에 대한 경이로움"이 섞여진 미묘한 느낌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고

다섯째, 기왕에 결정된 차기대회는 좀 더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하겠구나 하는 점이였다. 말레이시아 건축가인 42세의 약관(?) 신임 ARCASIA 회장인 Dr. Keneth Yeang은 각 회원국에 공개질문서를 보냈다.

1. 귀협회는 ARCARIA 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2. ARCASIA 가 귀협회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3. 귀협회는 ARCASIA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라는 3가지 질문이였다. 답신을 곧 보내야 한다. 무엇이냐고 답을 할 것인가. 회원들의 의사가 궁금하다.

(표 1) ARCASIA 회원국 현황

국명	국토면적 (한국=1.0)	인구(1980) (한국=1.0)	국민소득 \$1984	공용어	영연방 관련여부	참석한 건축가 단체, 단체장
한국	1.0	1.0	2,110	한국어	×	KI RA W. S. Oh
방글라데시	1.6	2.3	70	영어 벵갈어	○	I A B
홍콩	0.01	0.13	6,330	영어	○	H K I A E. Wong
인도	36.3	18.0	260	영어 힌디어	○	I I A R. Khanatta
인도네시아	22.5	3.9	540	영어 바하사어	×	I A I A. Moersid
말레이시아	3.7	0.4	1,980	영어 말레이어	○	P A M H. Hajeedar
파키스탄	9.8	2.2	380	영어 울투어	○	I A P
필리핀	1.4	3.0	660	영어	×	U A P C. Canchela
싱가폴	0.06	0.08	7,260	영어 중국어	○	S I A Y. S. Suan
스리랑카	0.7	0.4	360	영어 신화자어	○	S. L I A P. fernando
태국	5.7	1.2	860	타이어	×	A S A S. Attakor
중국, 북경	105.5	25.1	310	중국어	×	중국건축학회 N. Dai
중국, 대북	0.4	0.4		중국어	×	중화민국 건축사회